

“3선 도전 VS 물갈이” 6명 대격돌

김장환 ‘실력 전남’ 토대 구축 당선 자신...김경택 맹추격 서기남·신태학·윤기선·정찬중 “이번엔 바뀌야” 압박

■전남도교육감 입지자

사상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남도교육감 선거에는 6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 서기남 전남도교육위원,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정찬중 전 무안교육장 등이다.

이들 중 정찬중 전 무안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학계·노동계·학부모 등이 주축이 된 도민후보 추대위가 다음 주 중에 ‘도민후보’ 1명을 내세워 출마하게 할 계획인 만큼 교육감 후보는 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환 전 교육감은 3선 도전에 나선다. 민선 4대와 5대 도교육감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퇴임한 김 전 교육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선두를 유지하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농산어촌 학교 발전 모델을 구축해 전국의 롤 모델로 자리잡게 했고, 학력 신장·독서교육 확대 등 실력 전남의 토대를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퇴임 후 ‘글로벌 인간교육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 쪽을

■전남도 교육감 입지자



넓히면서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그동안 안정적 도약을 해왔지만, 최근 교사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난제를 극복하려면 넓은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 출마 후보 중 유일하게 도교육청 출신이 아닌 김경택 총장은 초·중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등 교육복지 실현을 역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 전문가로서 감점을 살려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며 “대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라도 예측가능한 투명인사와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장 인사협의 등을 통해 교육 조

직을 안정화하는 데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투명한 인사, 교사 2인 1실 연구실 배정, 생활권내 최소 이동 인사, 동부권의 2층 사립,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초중등과 고등생인 교육 연계 협조, 무상급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장 등 주요 간부를 거쳤던 서기남, 신태학, 윤기선, 정찬중 후보 등은 ‘물갈이’론을 내세우며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위원인 서기남 위원은 화순·여수 교육장을 지내면서 다진 인맥을 바탕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교육위원 선거에서 서부권역 최다 득표를 올리기도 했던 서 위원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남교육을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으로 교육

〈가나다 순〉

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또 낙후된 전남교육의 틀을 타파하고 새로운 학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의 비전을 제시,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5대 공약으로 교수능력 함양 등 교직원화 형성, 진로·직업 교육 강화,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획기적인 유치원 종일반 확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결연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내걸었다.

신태학 전 교육장은 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장학관 등 교육계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신 전 교육장은 “모든 학생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지역·학교간 교육 격차가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전국 하위수준인 전남학생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교육력을 집중하겠다”며 당선 의지를 다졌다. 그는 교육 일류화를 위해 학력증진 프로젝트 추진, 진로·상담교육 강화, 자율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소규모 초등학교 유지 및 중·고교 적정 규모 현대화, 청렴 교육행정, 지자체와 교육공동체 구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자신이 결성한 전남교육문화포럼을 중심으로 교육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의 당선 의지도 확고하다. 윤 전 원장은 “남도는 다른 지역과 정치적·경제적

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지면 남도인은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남도의 교육을 한국 교육발전의 모델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사 와 학생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교실 혁신 프로그램을 투입하면 모든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면서 “내 아이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교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또 “2004년 자신이 개발해 정부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육혁신전략’을 전남교육의 미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찬중 전 무안교육장도 자녀보호운동 전남본부부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이는 데 애쓰고 있다. 2월말께 공식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정 전 교육장은 “장학사 시절 만든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과 장성 사창초등학교장 재직 때 이룬 ‘꿈과 사랑이 영그는 학교’ 경험을 살려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도서·벽지·농촌 지역의 맞춤형 교육, 투명한 인사체계 확보도 청렴도 향상, 지자체와 연대해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 교원 업무경감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쟁점&변수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22개 시·군에 이르는 넓은 선거지역을 누가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선점하느냐다.

교육계 인사가 대부분인 후보들은 일단 전직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넓혀가는 형국이다. 지난 5~9일 실시한 광주주요 여론조사에서도 각 후보별로 교육장 등을 지냈던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높은 지지율만으로 교육감에 당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교육감 후보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지는 데다, 교육계에서 주로 활동한 탓에 선거 운동에서도 교육계만을 걸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교육감 후보 출마자들은 22개 시·군의 교육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지역 교육장의 경우 특정 후보에게 이미 충성을 맹세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 정도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계 위주의 선거운동은 직선제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층이 60%에 이르고, 지지율 1위부터 최하위까지의 격차가 불과 5%p내에 머물러 있는 게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기호(나)

① 노령층 유권자의 선택은

② ‘도민후보’ 영향력 얼마나 될까

③ 도교육청 출신 VS 비교육청 출신

를 뽑는 후보가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노령층 유권자가 많은 전남의 특성상 민주당 선호사상이 강해 민주당 자리에 이름을 올린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물지마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정당의 조직력이 없이 ‘나홀로’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해 득표율을 올리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도교육청 출마자들도 “선거조작이 없다 보니 관심도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30~50대 유권자 분포도가 도시권보다 크게 떨어진다는데에서 관심이 하

락에 따른 ‘물지마 투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전남지사 후보군과 ‘연대 패키지’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와의 연대가 이뤄질 경우 교육 공약의 코드를 맞춘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도민후보의 영향력 수위도 관심거리다.

오는 29일께 최종 선출될 도민후보에는 장만재 순천대 총장과 고진형 영산성지고 교장, 박두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1차 후보 검증 통과한 상태다. 이 밖에 도교육청 출신과 비교육청 출신간 대결과 인물·공약 대결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직 위원·전교조 출신 대거 도전

5개 선거구에 20명 표심잡기 돌입

■교육의원 입지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대폭 축소된 전남도교육위원들이 줄어든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그동안 22개 시·군에서 9명을 선출했으나, 직선제인 이번 선거에선 5명으로 줄었다. 일단 9명인 현 전남도교육위원 중 서기남 위원이 교육감으로 급(級)을 올렸으며, 서건통 위원을 제외한 7명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교조 출신들이 상당수 교육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는 김봉근 전 신안교육장, 박병학 전남도교육위원, 오영석 전 목포시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2선거구(여수)는 김성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과 윤문철 총덕중 교장, 이윤정 전 여수교육장, 조철규 여수여고 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부의장은 꾸준히 다져놓은 지지세력이, 윤 교장과 조 교장은 현직 교육 경험이, 이 전 교육장은 교육계 전반을 두루 거친 깊이 있는 교육 경력이 장점이다.

3선거구(순천·고흥·보성)는 한이춘 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조준기 조준기 교육위원, 임영은 전 순천교육장, 정해원 전 나주교육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3선거구의 감자는 ‘순천 토박이’인 한 의장이다. 한 의장은 순천대 총동창회장 등 지역내 각 단체의 회장을 두루 경험한 마당발로 통한다. 또한 조 위원과 임 전 교육장, 정 전 교육장 등도 지역내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유력인사들이다.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은 유재원·김복 전남도교육위원과 나송옥 전 위원 등이 출마예상후보다. 현직인 유재원·김복 위원의 탄탄한 조직력과 지난해 교육위원직을 떠난 뒤 일찌감치

2선거구(여수)는 김성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과 윤문철 총덕중 교장, 이윤정 전 여수교육장, 조철규 여수여고 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부의장은 꾸준히 다져놓은 지지세력이, 윤 교장과 조 교장은 현직 교육 경험이, 이 전 교육장은 교육계 전반을 두루 거친 깊이 있는 교육 경력이 장점이다.

3선거구(순천·고흥·보성)는 한이춘 도교육위원회 의장과 조준기 조준기 교육위원, 임영은 전 순천교육장, 정해원 전 나주교육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3선거구의 감자는 ‘순천 토박이’인 한 의장이다. 한 의장은 순천대 총동창회장 등 지역내 각 단체의 회장을 두루 경험한 마당발로 통한다. 또한 조 위원과 임 전 교육장, 정 전 교육장 등도 지역내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유력인사들이다.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은 유재원·김복 전남도교육위원과 나송옥 전 위원 등이 출마예상후보다. 현직인 유재원·김복 위원의 탄탄한 조직력과 지난해 교육위원직을 떠난 뒤 일찌감치

■교육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봉근(64)	전 신안교육장
	박병학(75)	교육위원
	오영석(63)	전 목포시의원
2	김 성(69)	교육위원
	윤문철(63)	총덕중 교장
	이윤정(68)	전 여수교육장
3	조철규(62)	여수여고 교장
	한이춘(65)	교육위원회 의장
	조준기(72)	교육위원
4	임영은(66)	전 순천교육장
	정해원(69)	전 나주교육장
	김 복(60)	교육위원
5	나송옥(69)	전 교육위원
	유재원(65)	교육위원
	민병홍(50)	교육위원
	박노희(73)	광양 문화위원장
	박성식(63)	전 광양교육장
	배병재(62)	구례교육장
	백상구(64)	전 광양동초 교장
	허영석(64)	전 장성실고 교장

‘표밭다지기’에 나선 나 전 위원과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5선거구(광양·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는 민병홍 전남도교육위원과 박노희 광양문화위원장, 박성식 전 광양교육장, 배병재 구례교육장, 백상구 전 광양동초 교장, 허영석 전 장성실고 교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전체 선거구 중 출마 예상자가 가장 많은 5선거구는 선거지역마저 넓어 쉽지 않은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의 명칭은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으로 바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인민국 대표 건강신발
헬스킹 기능화
산발이 아니다. 기아를 선택한다!
Product Composition

태양광발전소 부지구합
위·차: 제한없음
용·량: 제한없음
(주) 망심부동산건설팀
TEL. 010-3616-8698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민원학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www.gju.ac.kr